

화장품쇼핑성향에 따른 여대생의 충동구매와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최 수 경* (마산대학 뷰티케어과 강사)

강 경 자 (경상대 의류학전공 교수)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화장품쇼핑성향의 차원을 유형화하고, 화장품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충동구매유형과 심리적 특성인 성격특성, 자아상의 차이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으로 하였고, 조사시기는 2004년 10월-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ANOVA분석과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쇼핑성향을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1은 여가적 쇼핑성향, 요인2는 경제적 쇼핑성향, 요인3은 상표지향 쇼핑성향, 요인4는 신중 쇼핑성향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군집분석한 결과 집단1은 여가적 쇼핑성향과 경제적 쇼핑성향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저관여 쇼핑형, 집단2는 경제적 쇼핑성향이 낮고 여가적 쇼핑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여가성 쇼핑형, 집단3은 여가적 쇼핑성향이 낮고 경제적 쇼핑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판단되어 경제성 쇼핑형, 집단4는 여가적 쇼핑성향과 경제적 쇼핑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고관여 쇼핑형으로 명명하였다.

화장품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전체충동성과 충동구매유형(계획된 충동구매, 회상적 충동구매, 유행지향적 충동구매, 순수 충동구매, 계획구매)의 차이를 보면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전체충동성은 여가성 쇼핑형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저관여 쇼핑형에서 낮게 나타났다. 계획된 충동구매는 고관여 쇼핑형에서 높은 것으로, 저관여 쇼핑형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상적 충동구매, 유행지향적 충동구매, 순수 충동구매는 모두 여가성 쇼핑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성 쇼핑형에서 낮은 반응을 보였다. 계획구매는 경제성 쇼핑형, 고관여 쇼핑형에서 높은 것으로, 저관여 쇼핑형, 여가적 쇼핑형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을 보면 내향적-외향적, 편의주의-성실한, 보수적-개척적, 자율적-통제하는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저관여 쇼핑형은 내향적이고 보수적인 성격특성으로, 여가성 쇼핑형은 외향적이고 개척적인 특성을 보임으로서 저관여 쇼핑형과 여가성 쇼핑형은 성격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화장품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자아상을 보면 순진한-세련된, 전통적인-현대적인, 한결같은-창조적인, 내성적인-사교적인, 생활스타일이 단순한-생활스타일이 다양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저관여 쇼핑형은 전통적이고 내성적이고 생활스타일이 단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성 쇼핑형, 경제성 쇼핑형, 고관여 쇼핑형은 현대적이고 사교적이고 생활스타일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가성 쇼핑형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